

“박지성·이영표 고지 적응 빨리하라”

허정무호 이란전 앞두고 컨디션 회복 여부 승리 판기를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꿈을 안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 훈련 캠프를 차린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허정무 감독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4차전인 이란과 원정경기 직전에야 대표팀에 가세하는 유럽과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도르트문트)를 들었다. 박지성과 이영표에 대한 허 감독의 신뢰는 두텁다. 유럽 바리그에서도 기량을 인정받은 이들이 대표팀에서도 변함없는 활약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박지성은 다음 달 9일 오전 웨스트햄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를 치르고 런던에서 두바이를 거쳐 같은 날 오후 테헤란에 도착한다.

이영표는 다음 달 9일 오전 바이에른 뮌헨과 독일 분데스리가 원정경기 후 프랑크푸르트에서 테헤란으로 이동, 10일 오전에야 대표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 경기 이틀 전에 대표팀에 합류하는 것이다. 게다가 결전의 땅인 테헤란은 해발 1천200m

의 고지이다. 적응에 어느 곳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허 감독은 “박지성과 이영표가 경기 이틀 전 합류해서 얼마나 뛰어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과 이영표의 낮은 가세는 대표팀 전술의 좌·우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어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박지성은 대표팀에서 왼쪽 미드필더로 자리를 잡았다. 박지성이 소속팀에서처럼 측면에서 뛸 때 대표팀 공격도 활기를 띠었다. 허 감독은 좌·우 풀백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이영표도 지난해 11월 사우디 아라비아와 3차전(2-0 승)에서처럼 왼쪽에 세우고 싶어하는 눈치다.

왼쪽 풀백 자원은 김동진(제니트)과 김치우(서울)도 있다. 하지만 “이란전은 반드시 이기겠다고 무리하게 달려들 상황은 아니다”라는 허 감독의 말처럼 경험 많고 수비가 안정적인 이영표가 경기를 책임질 가능성이 크다.

허 감독은 “2004년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컵 때 이란은 오른쪽 미드필더 호세인 카에비(사파)가 측면 공간을 파고들어 공격을 주도했다”면서 “그래서 더욱 왼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철 체력’을 과시해 온 박지성과 이영표가 얼마만큼 정상 컨디션으로 제 몫을 해줄지가 이란 원정 승리의 열쇠다.

하인스 워드 슈퍼볼 출전 유력

부상 후 첫 팀 훈련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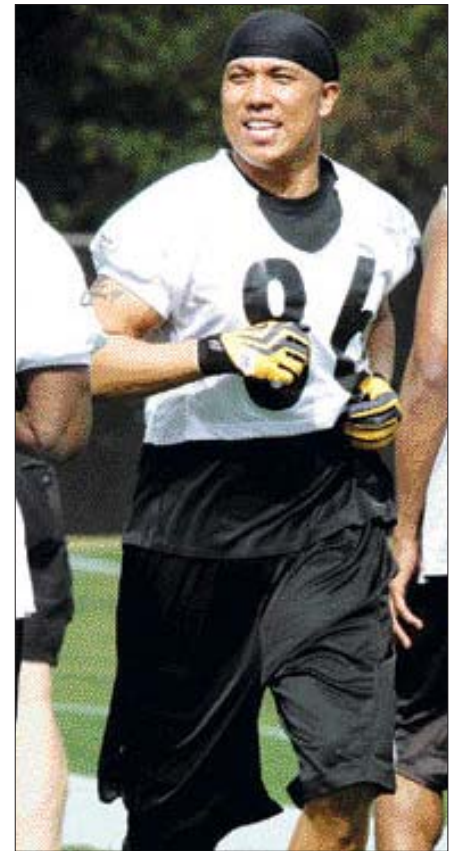
올해 슈퍼볼에서도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32·피츠버그 스틸러스·사진)가 경기장을 누비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3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프로풋볼(NFL)에서 뛰는 워드가 부상 후 처음으로 플로리다주 사우스 플로리다대에서 열린 슈퍼볼 대비 팀 훈련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워드는 지난 19일 아메리칸 콘퍼런스 결승전 1쿼터에서 패스를 받다 볼터머에 코너백 프랭크 워키에게 태클을 당해 오른쪽 무릎을 접질린 뒤 재활 치료만 집중적으로 받아왔다.

와이드 리시버인 워드는 아직 회복 중이라 이날 훈련에서는 전속력으로 달리지지는 않았지만 빗속에서 2시간 가량 공격진과 함께 손발을 맞췄다.

훈련을 지켜본 마이크 톨린 피츠버그 감독은 “워드는 굉장했다”며 “슈퍼볼에서 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상욱 3개홀 연속 버디

PGA FBR 오픈 첫날 4언더 67타 공동 5위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이 지난 주 부진을 잊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FBR 오픈 첫날을 상쾌하게 끝냈다.

지난 주 북호프 클래식에서 컷탈락했던 나상욱은 30일(한국시간) 에리조나주 스크츠데일의 스크츠데일TPC(파71·7천216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4언더파 67타를 쳤다. 6

언더파 65타를 친 2명의 공동선두 제임스 니티스(호주)와 투카스 글로버(미국)에 2타 뒤진 공동 5위에 자리한 나상욱은 지난 주 부진을 잊어내고 첫 우승에 도전할 발판을 마련했다.

드라이버샷과 아이언샷 모두 괜찮았다. 나상욱은 페어웨이 안착률 79%, 그린 적중률 78%를 기록했고 퍼트수가 29개로 올라간 것이 아쉬웠다. 14번홀까지 1타를 줄이는데 그쳤던 나상욱은 15번홀(파5)부터 3개홀 연속 버디를 잡으며 선두권으로 도약했다.



흑진주 자매 “우리가 해냈다” 서리나(오른쪽)·비너스 자매가 30일 호주 멜버른서 열린 호주오픈테니스 여자복식 결승서 일본의 수지아미·슬로바키아의 한투초바조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후 기뻐하고 있다.

WBC, 승부치기·비디오 판독 도입

2회째를 맞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승부의 박진감과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대거 도입했다.

3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WBC 실행위원회에 참석한 하일성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은 제2회 대회에서 ▲연장 13회부터 승부치기 ▲더블 일리

미네이션(Double Elimination) ▲제한 투구수 증가 ▲홀런타구 비디오 판독 ▲포수 부상시 45명 예비 엔트리에서 바로 교체 ▲주루코치 헬멧 착용 ▲선발투수 1일전 예고제 등 대회 요강이 최종 확정됐다고 전해왔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특징은 승부치기 도입이다.

대한롤러연맹회장 유준상씨

유준상 한나라당 상임고문이 30일 대한인라인롤러연맹 제14대 회장에 선출됐다.

유 신임회장은 이날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17명의 대의원 중 10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유 회장은 “지방연맹과의 유대강화, 상무팀 창단,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선수육성 등을 통해 인라인롤러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배드민턴협회장 김영자씨

김영자 광주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이 30일 제5대 광주배드민턴협회장에 취임했다.

1962년 수피아 여중 시절 선수생활을 했던 김영자 신임 회장은 광주체육고·전대사대부고 감독을 역임하면서 배드민턴 활성화에 노력해왔다.

김 회장은 또 14년간 광주시체육회 이사와 함께 동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장학사, 중등교육과장 등을 거치면서 엘리트 체육 육성에 애를 썼다.



생활 게시판

화측

▲윤창열(천지건설(주)·천지지하개발(주) 대표이사)·김정란씨 강남 대성(서울 세브란스 병원)군 신창수·유정희씨 장녀 애경(서울시향)양=2월8일(일) 트호텔 그랜드볼룸 5층, 피로연 31일(토) 오후 6시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 홀.

부음

▲박광순씨 별세 조일기·종기·삼기

씨 모친상= 발인 31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385

▲김옥심씨 별세 김성수(미래에셋생명)·양수(전남도청)씨 모친상 박지미(경기 금정중학교)·신양희(목포 중앙여자고등학교)씨 시모상= 발인 31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박명길씨 별세 연재·재순씨 부친상 안병호씨 빙부상=발인 31일(토)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박순례씨 별세 양원기(현대모비스이사)·성자씨 모친상 오상윤 씨 빙모상=발인 2월1일(일)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온돌나라 **휴침대/돌침대** **특별초대전**

기간: 2009년 1월 30일(금)~2월3일(화)까지 | 장소: 광주 신세계백화점 지하1층 행사장 | 전화: (062)360-1461 | 011-279-8870

사은품 증정합니다.

- ▶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 **실용백**을 증정합니다.
- ▶ 20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 **과세사**를 증정합니다.
- ▶ 30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 **타월세트**를 증정합니다.

두/한/족/영(문화)미합?

온돌나라는 휴침대/돌침대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고의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휴침대/돌침대는 온돌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돌과 함께 사용하면 온도가 높고 쾌적하며, 온돌과 함께 사용하면 온도가 높고 쾌적하며, 온돌과 함께 사용하면 온도가 높고 쾌적하며...

온돌나라 **www.ondolnara.co.kr**